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 각 충 헌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28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개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충헌교회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행5:20)라는 표어 아래, 제28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개최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총회장 유인식 목사)가 주관하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 충헌교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금년에는 전국에서 2천여명의 목사, 장로가 참가하여 한국 교회가 회개를 통하여 갱신되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

여 사랑을 실천하며, 종교개혁정신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기도회가 개최되는 동안 선교세미나와 교육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며, 이종운 위임목사가 15일에 강연을 한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도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오찬대접을 위하여 마리아·루디아·에스터 전도회가 봉사한다. 또한 순

서순서마다 연합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4교구찬양대(제4회 교구찬양대회 소망상 수상)가 찬양을 맡고, 핸드벨콰이어, 크로마 하프단이 특송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의 순서 진행에 맞춰 13일부터 16일까지의 새벽기도회는 5시, 수요일부 예배는 10시에, 11부 예배는 7시 30분에 시작한다. 충헌의 성도들도 이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



민임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자랑스러운 C 군,

대학입시에 낙방한 사람들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실의에 빠져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있던 차에 군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주중에는 재능을 연마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피곤한 줄 모르고 힘써 일하고 있는 자네의 모습은 정말 대견스럽게 느껴져 보는 이들에게도 크게 은혜와 힘이 되어지고 있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인간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전진해가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나타날 것일세.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황무지를 복음으로 살려내지 않았는가. 자네의 그 숨은 현신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어떤 모습으로 사용될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이네.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게. 좋은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것이네.

4. 28

이 종 윤 목사

5월 28일부터 제2회 김치(KIMCHI) 세미나

중국어권 목회자 초청하여 훈련키로

제2회 김치(KIMCHI) 세미나가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우리 교회 부설 세계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한 한국연구원(KIMCHI)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홍콩, 인도네시아, 미국, 대만, 필리핀, 한국, 중국 등에 있는 중국어권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주최측은 약 7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한



한국연구원은 이번 김치세미나를 위하여 번역, 영접, 관광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사무국 행정과에서 받고 있다.

70인전도대 실천사역 전개키로

70인전도대가 5월 4일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터미널과 농촌 지역으로 전도 실천 사역을 나간 다.

이 실천 사역이란 그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받아 온 전도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배우

고 익힌 사역리를 중심으로 2명 이상에게 개인적으로 집중적인 전도를 하게 될 것이다.

농촌지역 실천 사역팀은 오전 7시에, 서울지역 실천 사역팀은 오후 3시에 집합하여 실천 사역을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교회 교역자 초청간담회 은혜 중에 마쳐

지난 4월 19일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위원회(위원장 우거전 장로) 주관으로 지교회 교역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장병기 목사(금현교회), 비정양 목사(사현교회), 양경운 목사(진현교회), 정희준 강도사(부원교회), 한용관 강도사(제현교회), 민준화 전도사(사충원교회) 등 6명의 지교회 교역자와 이종운 위임목사, 전도위원회 위원 및 전도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전도



위원회의 금년도 농촌전도 방침이 설명되어졌고, 지교회 목사들로부터 교회 사정을 보고받고 지원 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종운 위임목사의 위로를 받은 지교회 교역자들은 새롭게 영적힘을 얻고 임지로 떠났다.

제4차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24일 이종운 위임목사의 집례로 수요일, 11부 예배 시간에 제4차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성례식에서는 42명이 학습을, 44명이 세례를, 2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또 1명이 입교를, 2명이 개종을 하였다.

경로대학 야외학습 25일 자연농원으로



충헌살림경로대학이 지난 4월 25일 용인자연농원으로 야외학습을 다녀왔다. 모두 205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가했던 이번 야외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사랑부 교사 재교육 실시

사랑부(부장 강모용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지난 주일부터 장애인 치료를 위한 교사 재교육을 실시했다.

이홍성 목사의 지도로 정신적 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약 1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정진적 지도와 육체적 지도, 성경과 비추어 생활지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교육은 6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올림픽 표어 “모였노라 / 잡았노라 / 이기었노라!”

오늘 4부 예배 후 제2차 설명회

제3차 충헌올림픽 집행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의 표어를 “모였노라 / 잡았노라 / 이기었노라!”라고 정하였다.

지난 4월 25일 저녁 7시 30분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팀 단장 및 교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체점기준, 대진표, 선수명단 제출 등 각 팀에서의 경기 준비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오늘 11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를 갖고 진행상 주의 사항 등 올림픽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교인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팀별로 자리를 앉게 되며, 회의가 끝난 후에 교구 모임을 연합으로 갖는다고 한다.

탁아부 모범아기 선발

탁아부(부장 정윤석 장로, 지도 유순화 전도사)는 5월 5일 어린이주일을 맞아 모범아기선발대회를 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 대회는 평소 출석이 우수하고 노래와 율동 등 선생님들의 지도에 잘 따르고 기도를 잘 하는 아기를 뽑는다.

장년4부 오늘 특강

장년4부(부장 김원선 장로)는 모세교 “아마겔돈과 세상 종말”을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직원모집

- 직 종 : 충헌기도원 새참 및 취사담당자 약간명
- 자 격 : 세례교인으로 건강할 정도
- 사 찰 : 25세 ~ 35세
- 취사담당자 : 35세 ~ 55세
- 구비서류 : 경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 각 1통
- 제출마감 : 5월 12일
- 제 출 처 : 사무국 총무과



성경 이해

이 종 운 목사

불 신 앙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요12:36-40)

하나님께서로부터 사랑받고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고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

다 (요 12:37).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

1.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습니다(요 12:36, 37). 예수님께서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고 놀라운 표적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 하반절을 보니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본문 3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넓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지혜를 거두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까. 또 인간은 구원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인간의 책임을 감소시키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들은 바를 누가 들었으며 주의 팔이 넓게 나타났나이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라는 본문 38절과 39절에 기록된 말씀은 번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는 맞게 번역되어 있으나,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것같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셔서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가 바로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아담 이후 어두움의 자식들입니다. 도무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눈이 밝아졌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점점 강박해 집니다. 따라서 신앙은 더 큰 신앙을 가져오고, 불신앙은 더 큰 불신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움 속에서 오랫동안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빛을 거부하는 어두움의 자식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인류를 모두 구원하시지 않으셨던가. 인간을 구원하실 바에야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구원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께서 속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사고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책임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 40절 하반절에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靈眼)이 밝혀져서 진리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약속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의 눈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객관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죄로부터 떠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고침이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영광까지도 누리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두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감기시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게 되고,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강박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롬 9:14-18). 이 말씀에 의하면

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37절의 말씀은 많은 기적을 보여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시고 믿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2. 빛을 거부한 사람들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요 12:35) 예수님께서 빛을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빛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의 원인이 어두

다락방 순례

아파트 한 동마다
한 다락방을 소망하며

- 제3교구 청실다락방 -

이번주 주간충현은 다락방 배 가운데에 열심인 청실 다락방을 찾아보았다. 전경균, 권명희, 김종립, 김필숙 집사님이 다락방장으로 부지런히 봉사하고 계시는 청실다락방은 현재 네 개의 다락방이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청실아파트에서만 8년째 사신다는 이 다락방의 한 성도는 청실아파트에 처음에는 한 개의 다락방밖에 없었는데 어느덧 네 개의 다락방을 가진 아파트가 되었고, 3교구의 올해 목표인 “한 아파트 한 동 한 다락방”을 위해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열심이라고 하셨다.

또한 청실다락방 식구들은 주변에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내던 식구들에게도 온정의 손길과 기쁨의 인사를 건네는 다락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락방 식구들끼리의 협력도 무척 잘되어 서로서로 식구들은 사랑으로 아끼고 있다. 특히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편들은 차량을 동원, 부인들의 신앙 생활을 돕고 있다. 충현의 산 중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젊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보살피 주신다.

다락방 식구 중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관계로 사업을 위해서 서로들 기도하고 있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 또 본 교회에 등록하고도 열심이 없어서 봉사하지 않는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다른 다락방에 비해 열심으로 봉사하는 제직들도 많아서 일꾼이 많다고 은근히 자랑하시는 전경균 집사님은 수요일 다락방장 성경공부가 여태껏 안일, 나태에 빠지기 쉬웠던 다락방장들을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다락방장들끼리 모이니까 책임감도 생긴다고 하셨다. 또 주일 오후에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주위의 다락방장들도 수요일 공부를 모두 환영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다. 앞으로도 다락방장들이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기에 앞서 믿음과 눈물의 기도로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충현의 다락방들이 더 많아지고 은혜로워질 것이라고 다락방장의 소명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청실아파트 다락방을 둘러보면 서 우리 교회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많은 아파트촌이 모두 복음화되어서 한 동 한 동마다 다락방이 하나씩 생기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 셋이 미주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 2월 24일이였다. 나는 해외출장 등으로 여러 번 다녀왔지만 미주여행이 처음인 아내와 딸의 경우는 막대한 감회를 잊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 보람된 여행이 될 수 있는가를 각자 목적에 따라 생각해 두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인간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근무하거나 경영하는 사업식구들로부터 초대되는 곳에서 장소가 어떠한 곳이든,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게 되었다. 우리도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느냐고 놀랄 정도였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전도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었다.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감격은, 27세에 혼자되어 핏덩이와 같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이곳으로 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지금은 대

육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친지친척들에게도 복음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불교에 골수인 사람도 우리를 접하면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다.

귀국 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3일간 더 머무를 수 있게 사정이 허락되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곳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냈다. 한 미영락교회에서 경영 특강을 요청받고 경영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교회와 일반 사회 집단의 차이

독자의 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마다

이 영 열 집사(제12교구)

으로 이따 예비해놓으신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딸의 유학과 나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여행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마다 전도와 기도와 찬송만을 하게 하였다.

특히 이번 생활을 통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고민하는 가정이나 이국만리에서 심령의 갈급함으로 고민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매, 인종과 피부와 언어 등의 갈등으로 이방지대의 고아가 되다시피한 2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한 위로와 사랑을 우리들을 통해 예비 하셨다.

먼저 하와이에 도착하여 우리를 영접해준 친지친척과 그들이

학생이 된 아들 딸과 같이 샌드위치 장사를 하는 어느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의 세계선교훈련원 건립을 위해 미화 백불을 우리 부부를 통해 전달했던 것이다. 왼쪽 발이 아파 고통 중에 있던 그분과 함께 밤이 새도록 우리 부부는 찬송하고 기도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회개하고 변화가 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부부는 보람을 느꼈고, 아들, 딸 또한 주님을 영접하니 다락방의 기적처럼 여겨졌다.

여러 가정에 초대되어 기도할 때 모두가 충현교회를 알게 되고 한국 방문시 충현교회를 통해 특히 2세에게 믿음을 깨우치고 싶다는 그들의 호소가 단순한 순간의 호기심이 아님이 역력했다. 뉴

점을 강의하였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모임으로 그 권위성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성을 강조했다. 이 세상에는 크든지 작든지간에 경영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경영이야말로 미려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모여서 기도하고 체험을 통한 신앙 상담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귀국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21:22)”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은 엄청난 결과를 주셨다.

를 맺고 꽃이 피어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친 후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여러 방면에서 업적을 쌓아온 분들의 감사 편지도 받아 보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학사업을 시작하였을 뿐입니다. 이 정도와 수준으로 만족하거나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한번 크게 기개를 펴야 하겠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이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장학회의 그릇을 키워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고 그 위탁자의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한번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드린 장학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에게 주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애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일을 위하여 장학금회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크고 풍성한 헌금을 결단해보십시오. 과부의 열전 한 닢과 같은 정성으로 드러봅시다.

충현장학회는
왜 있을까?최 대 인 장로
(장학회장)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런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에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혼탁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할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의 부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경쟁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모양의 장학회가 설립되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손을 펴고 있으며 그 간절한 소망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국 일꾼 양성을 3대 목표의 하나로 세운 우리 교회는 이의 구체적인 실천 행동의 일환으로 1971년부터 장학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20여년간 장학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충현교회 장학회는 세 종류의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현장학금은 2개월마다 한번씩 드리는 장학금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교사 자녀 및 미국 웨스트민스터 국제신학원, 합동신학원, 총회신학교 학생을 위하여 지급되고 있고, 소적장학금은 김장인 원로목사를 기념하여 모금된 기금의 소액으로 대학생, 신학원생, 미국 쉐튼 대학생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장학금은 위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혜자를 선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17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91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여 71명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고 천국 일꾼이 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충현의 장학회가 뿌린 씨앗에 저러사 열매

■ 선교지 소식 - 수리남

장기적 계획으로
복음의 씨앗 뿌려

안식령 수리남 선교사는 현재, 교회 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축조전도를 하며, 또한 신문물을 통해 전도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전도를 위해 병원에서 통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전도 활동을 통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장년예배를 드리며,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과 장년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하

여, 교사와 평신도 지도자로 양육하고 있다.

안 선교사는 수리남 복음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선교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지인 지도자를 선정하여 우리 나라에서 신학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큰 도시와 정글에 기도처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도자를 파송하여 교회로 성장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지난번 충현 교인들이 보내준 위드프로세서와 성찬기 세트는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서신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현지인 주일학교와 장년예배를 위하여 안 선교사가 말쑥과 언어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이 끊이지 않아야겠다.

모범적인 지역으로의
부흥을 목표로 삼은
제11교구 제1지역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30분 제11교구 1지역(지역장 최명환 집사)에 속한 10개의 다락방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 모임은 다락방장들이 2개월 동안 기도회 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김정순 전도사를 비롯하여 80여명의 지역 식구들이 참석하였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

식구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협력과 교제의 본을 배웠고, 교회와 제11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특히 1지역이 다른 지역과 온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또한 다락방장들이 특송을 불러 참석한 지역 식구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풍성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모범적인 교회의 모범적인 지역”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제11교구 1지역은 앞으로도 충현을 품고, 흥해작전,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등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자신들의 힘으로 담당하겠다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지역이다.

새가족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체험한

- 양병규 성도 가정 -



새가족 환영회 장면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한 양병규 성도 부부에게 처음으로 충현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기자가 물자, 두 분이 한 목소리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이것을 뜨겁게 감사드리고 있다고 하였다.

양병규 성도는 직장 관계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을 회사의 재정상 이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다. 그 때문에 결혼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곤란을 겪은 적이 없었던 두 분이 물질로 연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아내는 원래 모태 신앙으로 양병규 성도의 신앙을 지켰어야 했지만 점점 생활이 기울어지다보니 미지근한 상태에서 나타낸 신앙 생활을 하였다.

그런 즈음에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사는 성도를 통하여 충현교회로 인도하셨다. 그 후 양 성도는 말씀과 그 체험으로 하

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중을 위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고 마음에 깊이 와 닿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매일 첫 새벽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동안 입에서는 원망이나 탄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흘러 나왔다. 또한 생활 속에서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주위의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화실을 차리게 되었으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의 표현으로 ‘충현화실’이라고 하였다. 8개월간 노력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바쳤던 십일조가 어느 면에서나 가장 큰 은혜로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감사가 더욱 넘친다는 이들에게서 시험을 이겨낸 승리의 삶을 느낄 수 있었다.

드리기를 통해 한마음을 체험하고 각 팀이 어기라고 목이 터지게 응원하면서 역시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충현의 한 가족임을 뜨겁게 체험하였다. 반별도의 끝에 가진 찬양에서 나는 가슴 속으로 부터 복받치는 뜨거운 눈물을 맛보았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번 제자훈련에 찬양대가 많이 들어와서 화음이 잘 맞은 점도 있지만 특히 이 349장 찬송을 애써 뜨겁게 불렀는지 온 성도가 은혜 충만함을 받았으리라.

수료식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님은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 예언자적 정신의 회복, 사도적 정신의 회복을 강조하셨고, 참가 권교인과 열일이 손을 잡아주셨다. 그리고 예상외의 많은 성도가 참가하여 감자리가 불탄했던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팔 구유에서 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훈련을 다녀와서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정기복 목사님의 이 말씀으로 금년 들어 두번째인 충현제자훈련이 지난 4월 4일 시작되었다. 오후 6시 30분 충현교회에 모여 제석식사를 하고 갈릴라홀에서 비디오 상영 및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14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훈련장소인 충현기도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 20분 경이었다.

이번 충현제자훈련은 휴일인 식목일이 끼여 있어 직장에 나가는 많은 성도가 한계면에 몰려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7백여 명이 참석하는 관계로 버스 배정 및 숙소 배정에 상당한 좌절을 빚고 있었다. 결국 남자는 다내빌관, 여자는 에스테리관을 사용하게 되어 있던 계획을 바꿔 다내빌관도 여자에게 양보하고 남자들은 전원이 본당 지하의 넓은 마루바닥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물론 바닥에는 매레 50mm 두께의 스펀지포일이 깔려있어 있고 벽면에는 가스헤터가 작동하고 있어 흠지는 없었지만 대략 2백5십평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잠을 자야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 하나없이 모든 성도가 기쁨에 넘쳐 찬송가를 부

르고 밤 늦도록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새벽 1세경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다. 나도 담요 두 장을 뱉어 눈을 감고 잠을 청해 보았지만, 잠자리가 배편이다 뻐서부터 이곳 저곳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이번 제자훈련을 대신 신청하여주고 훈련복까지 자비로 사주신 김경애 다락방장의 모습에 떠올랐다. 사실 난 이번 제자훈련 참석을 한동안 망설이고 있었다. 4월 7일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바쁘게 준비하면서 제자훈련 참석을 나중에 미루고 있었는데, “같은 다락방식구들이 갈 때 함께 가서 많은 은혜받고 오라.”는 말 한마디에 늦게나마 참석을 결심하고 함께 오게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어떤저런 생각 속에 얼마쯤 지났을까 주변의 부시력거리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새벽 5시인데 부지런한 성도들이 벌써 오고간다. 밖으로 나오보니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고 새벽의 찬기운에 내 몸을 에워싸지만 웬일인지 조금도 과곤하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새벽 5시 30분 본당에 모여 “제백 오해라 메평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라니”(막 1:3)라는 선포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윽고 새벽 안개를 가르고 잣나무가 우계절 동산에 올라 난쟁이 채운 산상기도를 했다. 막암이 수북이 쌓인 곳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죄가 무엇이관대 어토록 죄많은

김진환 집사(제16교구)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는 세 분 목사님의 강도가 있었다. “모범적인 교회인 대살포니 개교회가 보인 믿음의 역사와 믿음, 땅, 패를 흘리는 수고가 있는 성도,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주는 사랑, 살아 있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씀과 성도는 누구나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점심시간 후에는 권교인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제자훈련이 있었다. 청과 백, 두 팀으로 나뉘어 썰매타기와 줄다리기, 풍선터